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기 간 : 2023. 4. 19.(수) ~ 4. 25.(화)

✓ 방 문 국 : 체코, 오스트리아

✓ 방문기관

- 체코(루돌피눔 공연장 / 체코 예술학교)

- 오스트리아(펠젠라이트슬레 / 무지크페라인 / 빈 국립오페)

✓ 출 장 자 : 하영주 의원, 황선희 의원

과 천 시 의 회

■■■■■ **목 차** ■■■■■

I . 출장개요	1
II . 주요일정	3
III . 출장내용	4
① 체코	4
② 오스트리아	13
IV . 정책제안	23
① 과천축제	23
② 한예종 유치	25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 ◆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탐방 국외출장」에 함께하여
- ◆ 관내 종합예술대학의 성공적 유치 토대를 마련하고, 과천축제 및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연계한 정책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I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2023. 4. 19.(수) ~ 4. 25.(화) / 5박 7일
- 방문국가 : 체코, 오스트리아
 - 체 코 : 루돌피눔 공연장, 체코 예술학교
 - 오스트리아 : 펠젠라이트슐레 공연장,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비엔나 국립음대
- 주요활동내용
 - 문화기관 운영현황 파악 및 기획역량 강화
 - 예술학교 운영현황,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항 및 협력사업 등 우수사례 파악
 - 공연장 시설현황 및 운영 시스템, 각종 행사 홍보방법 등 파악
 - 문화 탐방을 통한 과천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향 모색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연예술 정보교류 활성화 및 우수 콘텐츠 확보
 - 시민주도형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파악

□ 출장인원 : 11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과천시의회	의 원	하 영 주	
	의 원	황 선 희	
	의사팀장	권 광 희	
과천시청	부 시 장	하 승 진	
	행정안전국장	김 진 년	
	문화예술팀장	이 태 현	
	행정8급	김 다 환	
과천문화재단	과천축제 총감독	유 병 훈	
	문화사업팀장	김 재 호	
	차 장	박 경 현	
	주 입	이 승 희	



II 주 요 일 정

일 정	방문지역(기관)	활동내역
4/19(수) 1일차	11:00 인천공항	출국(대한민국→체코)
	16:55 체코 프라하 국제공항	도착 후 숙소 이동
4/20(목) 2일차	오전 루돌피눔 공연장	공연장 운영현황 벤치마킹
	오후 DAMU	과천축제와 연계 활동 타진 등
4/21(금) 3일차	오전 체스키 크롬로프	체스키 크롬로프 성 시찰
	오후 오스트리아	이동(체코→오스트리아)
4/22(토) 4일차	오전 할슈타트	할슈타트 트레킹
	오후 펠젠라이트술레	공연장 운영현황 벤치마킹
4/23(일) 5일차	오전 비엔나	이동(잘츠부르크→비엔나)
	오후 KURSALON WIEN	MOZART & STRAUSS 공연 관람
4/24(월) 6일차	오전 비엔나 국립오페라대	부총장 등 면담
	오후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공연장 운영현황 벤치마킹
	22:50 비엔나 공항	출국(오스트리아→대한민국)
4/25(화) 7일차	12:30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III 출 장 내 용

1. 체코(Czech Republic)

□ 현 황

- 면 적 : 중앙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독일, 남쪽에는 오스트리아, 남동쪽에는 슬로바키아, 북동쪽에는 폴란드와 닿아 있으며, 면적은 78,865km²(한반도의 1/3)로 세계에서 118번째로 큰 나라로 수도는 프라하이이다.
- 인 구 : 10,495,295명(2023년 통계청)으로 세계에서 88번째이다.
- 언 어 : 공용어는 체코어로 서유럽과 지리문화적 거리가 가깝고 관광업의 비중이 커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옛 공산권치고는 비교적 영어를 잘하며, 제2외국어로 장년층 이상은 러시아어를, 청년층은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 정 치 :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체코는 신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이다.

국가수반은 임기 5년의 대통령이며, 의회는 임기 4년의 하원과 임기 6년의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다당제 국가로 시민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등의 주요 정당들이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법상 의원내각제이지만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된다.

- 문화/예술 : 체코는 많은 유산들이 전쟁 속에서도 잘 보존되어 중세도시의 모습이 남아 있으며, 건축은 중세시대의 문화 중심지로서의 영향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유서 깊은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역사지구는 1992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프라하는 중세 건물로 장식된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중세 최고의 도시’ 이기도 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가 간직된 랜드마크 및 종교와 음악 같은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브랜드가 세계의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프라하의 랜드마크는 프라하성과 함께 카를교와 구시가지의 천문시계가 중심이 되며,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한 국가답게, ‘프라하의 봄’ 음악 축제나 문학 전통을 포함하는 도시이미지는 체코가 전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시임을 보여준다.

□ 방문기관

- 루돌피눔 공연장(Rudolfinum)

- 일 시 : 2023. 4. 20.(목) 10:00 ~ 11:30

- 목 적 :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의 메인 홀인 드보르작 홀이 있는 루돌피눔 공연장 방문으로 관계자 설명 청취 및 운영 실태 시찰을 통하여 「축제 및 문화예술 관련 공연장 운영 현황 파악」

- 현 황

- 루돌피눔은 1876년 체코 유수의 저축은행 체스카 스포리텔나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을 시작해 1884년 완공했다.

- 당시 후원자였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루돌프 왕자의 이름을 따 루돌피눔이라고 했으며, 주로 미술관과 연주회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예술가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국회의사당이 필요해 루돌피눔을 국회의사당으로 용도변경하였고, 1939년 나치가 체코를 점령했을 때는 군 총사령부로 사용하였다.
- 음악을 좋아하는 독일인들은 프라하에 콘서트홀을 짓고 싶어 했으며, 루돌피눔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 생각하여 돈과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루돌피눔을 극장으로 복원하고 현재까지 사용중이다.



-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 과 같은 개념의 건물이며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이자 주 무대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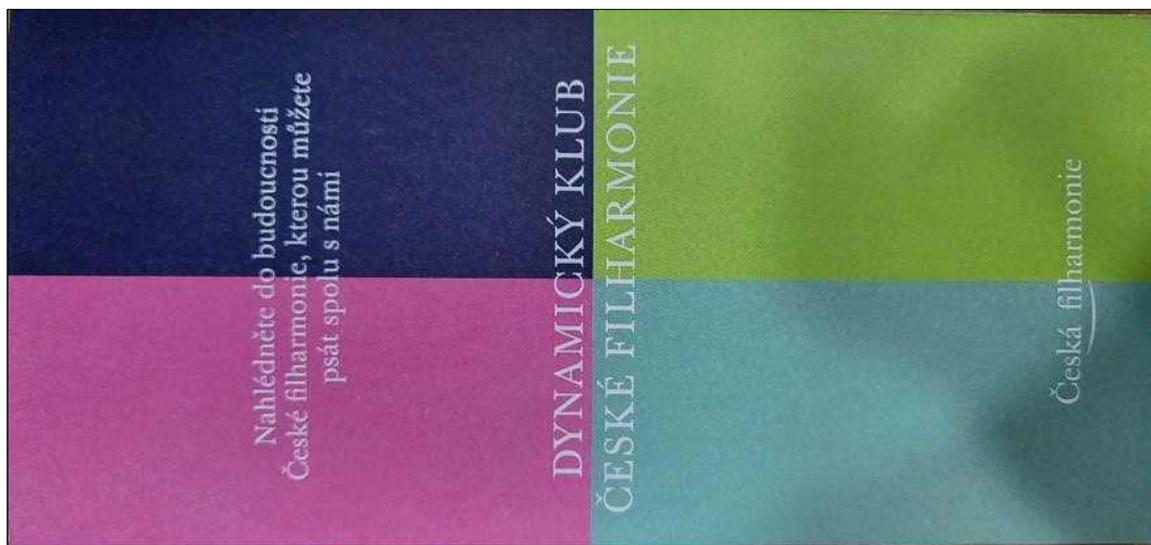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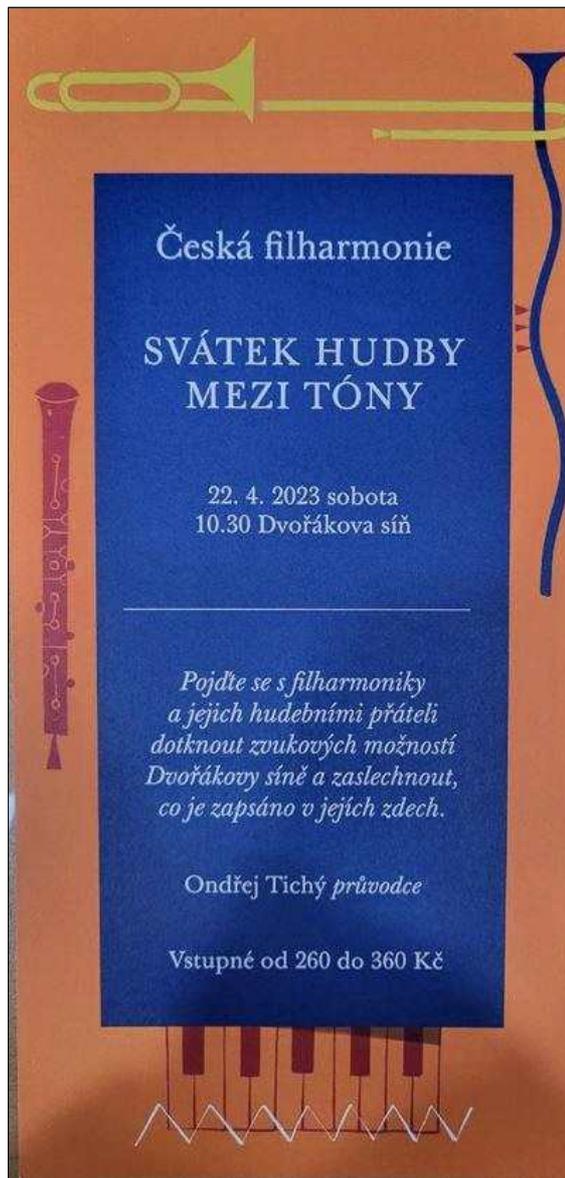
✓ 루돌피눔 변천사 : 미술관 / 연주회장 → 국회의사당
→ 군 총사령부 → 콘서트홀 / 미술관

- 주요 방문내용

- 공연장 개요 및 운영현황 청취
- 네오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한 루돌피눔은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으로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더라도 옛것을 잘 보존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산주의의 잔재로 기부 또는 스폰서 구하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규모가 큰 시설은 그때 그때 프로젝트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렵지 않다고 시설운영 관계자는 설명한다.
- 그래서인지 이곳 시민들은 루돌피눔이 국립으로 운영되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어 반대한다고 한다.
- 이곳뿐만 아니라 체코의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일관되게 느낀 것 중 하나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인데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은 1층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이 아닌 사람이 직접 보살핀다고 한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다.
- 또 다른 공산주의 잔재로 많은 관객 동원을 위해 객석은 중간 통로 없이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간에 앉은 사람이

이동하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아직 유지되고 있었고, 음악 홀은 관객 위주가 아닌 연주자 및 음향 위주로 설계되었다.

- 루돌피눔 공연장은 당초 4년을 예정하고 건축하였으나 완공까지 약 10년(1876~1884)이 소요되었으며, 그 당시 기준 6천 8백만 달러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관계자는 추산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오늘날 환산했을 때 도시의 단일 공연장 예산으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당시 최대의 금융사인 체스카 스포리텔나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예술가의 집을 짓기로 하여 많은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 공연장 건축에 쓰인 대부분의 부자재는 이탈리아에서 수입되었으며 체코 자체에서 이와 같은 전문 부자재를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 건축가 역시 체코 출신에 한정하지 않고 타 도시의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건축했는데, 루돌피눔은 요제프 지테크(Josef Zitek)와 요제프 슴츠(Josef Schulz)의 설계가 주를 이루었으며, 가장 유명한 메인 홀인 드보르작 홀 이외에도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요제프 스크(Josef Suk)의 이름을 딴 스크홀 등 여러 작은 연주회장도 마련되었다.
- 아울러 루돌피눔 인근에는 각종 예술학교들이 많으나 이들과 연계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다.



○ DAMU(프라하 국립예술대학 연극원)

- 일 시 : 2023. 4. 20.(목) 14:00 ~ 15:30
- 목 적 : 체코의 우수 예술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문화 예술도시로의 도약과 예술대학 유치 토대 마련
- 참석자 : DAMU 부학장 MAREK BECKA(마렉 베카)
- 현 황
 - DAMU는 연극예술학부로서 예술종합대학인 AMU에 소속되어있다. AMU는 원래 음악대학(HAMU)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연극학부(DAMU)와 영상학부(FAMU)가 추가되어 3개의 학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때론 독립적으로, 때론 상호 협조하여 예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학교 1층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극장이 있으며, 학교가 설립됐던 1946년부터 극장은 학생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전문 연극인들의 공연이 열리는 곳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 DAMU의 전신은 프라하 국립음악원으로 체코 저항운동이 활발했을 무렵, 운동의 기수 역할을 했던 공연예술 감독, 무대디자인 감독들이 공연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DAMU 설립에 앞장서 국립음악원의 교육영역을 확대했다.

- 주요 방문내용

- DAMU는 국립대학으로 외국 학생들도 어학 시험을 통과하면 체코어 프로그램은 체코 학생들과 같은 조건, 즉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일부 영어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고 한다.



- DAMU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0:1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로 쉽지 않다고 하며,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수진 등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
- 9월에 있을 과천축제를 위해서 학교 연극 동아리와의 연계 가능성과 학장의 축하 메시지를 홍보영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고 추후 자세한 일정은 협의하기로 했다.

- 한예종의 홈페이지 해외 자매교 현황에 체코 DAMU가 있어 최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잘 알지 못했으며, 국립 대학으로 시청에 장소 대관 정도는 하고 있으나, 인근 공연장들과 연계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다.

○ 체스키크롬로프 시찰

- 일 시 : 2023. 4. 21.(금) 10:00 ~ 12:00

- 현 황

- 체스키크롬로프는 블타바 강이 굽이쳐 흐르는 체코 남보헤미아 주의 작은 도시이다. 크롬로프 성을 포함한 뛰어난 건축물과 역사 문화재로 유명하며, 체스키크롬로프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 주요 방문내용

- 체스키크롬로프는 축제 동안 체코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특별 도로 사용 허가 및 도로폐쇄와 동시에 시의회는 도로 소유주로 도로 사용 및 입장료 징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도시답게 이미 2030년 까지 축제 일정이 잡혀 있었다.

2. 오스트리아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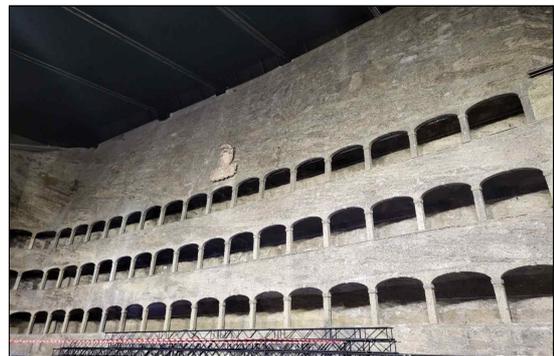
- 면 적 : 중앙유럽에 위치하며,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서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이웃하고 있고, 국토면적은 83,879km²로, 국토가 알프스 산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숲의 국가이며 덕분에 낙농업과 겨울스포츠가 성하다. 수도는 빈이다.
- 인 구 : 8,958,960명(2023년 통계청)으로 세계에서 99번째이다.
- 언 어 :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되는 오스트리아식 표준 독일어는 독일식 표준 독일어와 문어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문법이나 어휘 그리고 표현에서 몇몇 두드러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하고, 억양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나 상호 간에 방언이라고 여길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는 같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정 치 : 민주주의적 연방공화국으로서 상·하 양원제의 입법기관인 연방의회에 의해 통치된다. 하원은 183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회이며, 비례대표제에 따라 일반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인 연방의회는 9개 주의 입법부에 의해 선임된 63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 문화/예술 : 오스트리아의 현대 문화환경은 풍부한 유산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산은 건축과 시에서는 중세부터, 의학과 과학에서는 18, 19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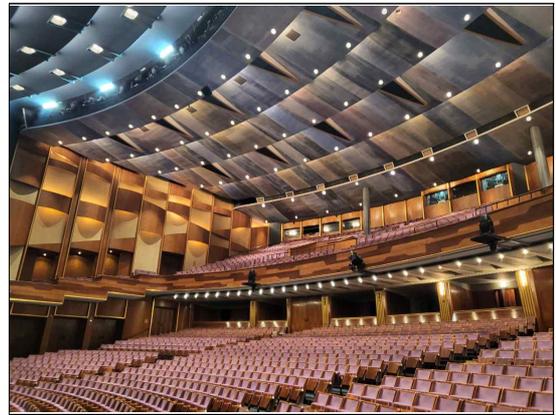
빈 화랑들은 많은 옛 대가들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편이다. 오스트리아는 음악분야에서 가장 높이 인정되는 문화적 공헌을 했으며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 작곡가로 요제프 하이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이 있다.

□ 방문기관

○ 펠젠라이트슐레(Felsenreitshule)

- 일 시 : 2023. 4. 22.(토) 15:30 ~ 16:30
- 목 적 : 세계적 클래식 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메인 공연장을 방문하여 기관 관계자의 설명 청취 및 운영실태 시찰
- 현 황
 - 잘츠부르크 대성당을 짓기 위해 암석을 채취했던 ‘뮌히스베르크 채석장’ 자리에 세워진 공연장이다. 암석을 깎아 건물을 만들어 경마장과 여름철 승마학교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메인 콘서트홀로 이용되고 있다.





- 현대적인 각종 기술장치가 돋보이는 1960년 카라얀의 요구대로 건축된 2,200석 규모의 대축제극장(Grosses Festspielhaus), 채석장 암벽을 파서 만든 대주교의 승마학교가 있던 곳을 활용해 60여 개의 아치로 둘러싸여 오페라와 콘서트, 연극 등을 공연하는 1,500석 규모의 펠젠라이트슐레(Felsenreitshule), 그리고 2006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소축제극장(Kleines Festspielhaus)을 새롭게 개축한 1,300석 규모의 모차르트 하우스(Haus fur Mozart). 이 세 공연장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연결되어 있다.

- 이 중 펠젠라이트슐레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특색있는 암벽 공연장으로, 1965년 제작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에델바이스’ 합창 공연 장면을 촬영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 주요 방문내용

- 펠젠라이트슐레는 크고 유명한 도시인 독일의 뮌헨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사이의 잘츠부르크에 있으며, 이들 도시와 같이 상주하는 합창단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바캉스 시즌으로 상대적 공연 비수기인 7~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모든 역량을 쏟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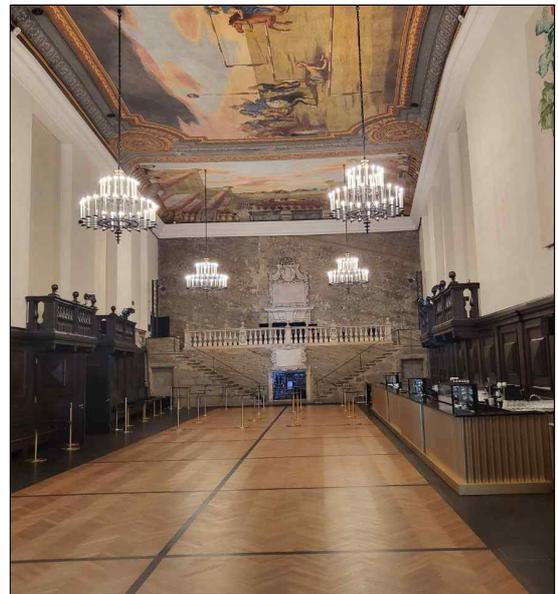
-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연주자, 지휘자, 오페라 싱어, 장비 기술자 등 전문가들을 바캉스 시즌인 7~8월에 데려와 페스티벌을 개최한 후 9월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 펠젠라이트슐레는 뒤편이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 일반 극장처럼 잦은 무대 변경이나 다양한 무대 장치를 하기 어려워 연중 오직 잘츠부르크 페스티벌(7~8월)과 부활절 축제(5월), 그리고 연초(1월)에만 관객에게 오픈된다고 하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에는 축제극장 3개의 모든 홀(대축제극장, 펠젠라이트슐레, 모차르트 하우스)을 다 활용해 23만 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 특이점은 저녁 7시 이후 야외 공연을 절대 잡지 않으며, 이것은 잘츠부르크 날씨 특성상 일교차가 커 저녁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음악가들의 건강과 악기 등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수준 높은 페스티벌을 위한 기본 원칙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또한 이곳의 운영은 이때 벌어들인 티켓수입(60%)과 스폰서 회사(15%), 중앙정부·시·잘츠부르크 연방이 나머지(25%)를 충당하여 운영하며,
- 중앙정부·시·잘츠부르크 연방에서 연 운영비의 25%를 부담하는 것은 7~8월에 공연 관람을 위해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 인근 호텔, 항공사, 상점, 레스토랑 등의 특수에 따른 큰 경제효과가 있어 지원해 준다고 한다.
- 이곳은 개성이 강한 곳이라 1925년 공연장으로 개축한 뒤 크게 리모델링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한다. 시간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그들의 자긍심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 잘츠부르크 시내를 걸으며 다소 의아한 점이 있었다. 각종 축제를 위한 홍보 현수막 등 홍보물을 거의 볼 수 없었고,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행사 안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설 운영자에게 물으니 이미 어떤 행사를 언제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어서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 이런 현상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가진, 아니 오스트리아가 가진 하나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들은 100여 년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운영하며 세계에서 손꼽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이 축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 어떤 축제가 개최되는지 알게끔 했다.
- 이러한 전통과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홍보를 하는게 아닌가 싶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결국 좋은 자리는 그들끼리 나누어 갖는 폐쇄성을 갖게 되었고 그들 내부의 주요 회원이나 후원자가 아니라면 좋은 공연의 좋은 자리에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이 도시의 자산들이 단지 ‘관광’으로 가볍게 소비되지 않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도 풍성하지만, 오페라, 교향악, 연극 등 높은 수준의 콘텐츠들로 클래식적의 진수를 보여준다.

- 축제가 펼쳐지는 물리적인 공간들은 음악도시로서 잘츠부르크의 오랜 역사와 예술적 야심을 환기시키는 장치이며, 이 모든 것이 음악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축제는 관광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관광객이 축제의 문화 속으로 포섭되도록 하는 듯싶다.

○ 빈 국립음악예술대학교

- 일 시 : 2023. 4. 24.(월) 12:30 ~ 13:30
- 참석자 : 전 한인회장 유소방, 중앙일보 류태형, 요하네스 마이쉴 빈 국립음대 부총장, 빈 필하모닉 수석 플룻티스트 발터 아우어



- 현황 및 방문내용
 - 1817년 빈 악우협회에 의해 설립된 빈 국립음대는 음악, 연극 및 영화 공연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대학 중 하나로 단순히 악기의 연주만 중시하지 않고 사운드 엔지니어링에도 관심이 많은 듯하였다.

- 음악 연구 관련 학문 분야와 함께 공연예술의 국제 리더로서, 현재 70여 개국에서 3,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학위과정과 68개 과정의 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4개의 부서가 있다.
- 또한 매년 약 1,100명에 달하는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매년 1,300개가 넘는 예술행사, 학술행사 및 과학행사를 개최하여 오스트리아 최대의 문화행사 주최자이기도 하다.
- 빈 국립음대 중 지휘과는 그 명성이 세계 최고로 일컬어지며 구스타프 알러, 한스 스바로프스키, 아르투르 니키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다수의 세계적인 지휘자를 배출하고 있다.
- 세계 5대 국제콩쿠르에 드는 베토벤 국제콩쿠르 등을 비롯한 뛰어난 국제콩쿠르와 카라얀 장학재단 등을 빈 국립음대가 유치하고 있다.



- 이곳의 교수진은 빈 필 또는 빈 심포니 단원들로 대부분 교수들은 한국에도 CD로 널리 알려진 현직 연주자들이며,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사람도 빈 필하모니 수석 플룻 연주자 이면서 이곳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발터 아우어였다.

○ 빈 무지크페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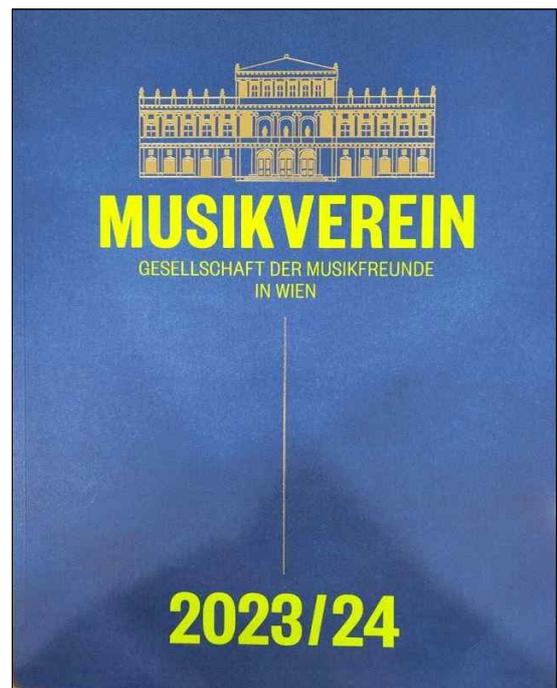
- 일 시 : 2023. 4. 24.(월) 14:30 ~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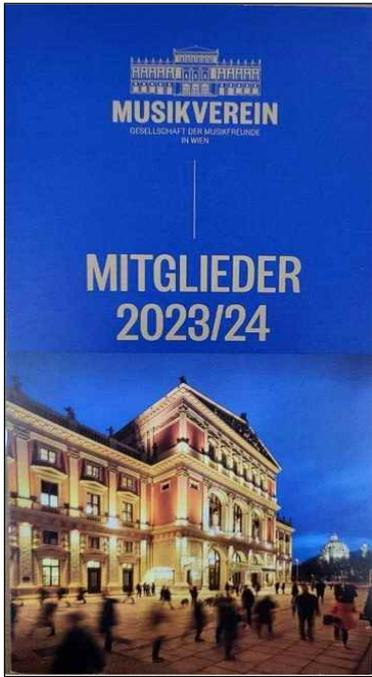
- 현황 및 방문내용

-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해 있으며, 1870년 빈 악우협회 소속의 콘서트홀로 건축되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주 콘서트홀로 유명하다.
- 무지크페라인은 오케스트라가 공연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홀과 챔버 홀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서 잘(홀)은 그 화려한 건축 방식으로 인해 황금홀이라고도 하는데 1,744명이 앉을 수 있는 관객석과 약 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입석을 갖추고 있다. 챔버홀은 약 700명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고, 1931년부터는 브람스 홀로 불린다.
- 무지크페라인의 황금홀은 완벽한 음향과 이름다운 천장의 벽화, 화려한 금빛 장식들로 가장 멋진 홀이며 매년 빈 필하모닉의 신년 음악회가 열리는 홀로 1872년 프리드리히 라데가스트가 설치한 오르간이 황금홀 뒤편에 설치되어 안톤 브루크너의 연주로 처음 공개되기도 하였다.



- 2004년에는 4개의 새로운 홀을 건축하였으며, 그중 가장 큰 것은 유리 홀로 38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그로서 잘의 오케스트라 피트를 정확히 본떠서 만들어졌다. 금속 홀은 1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의 리셉션, 리허설 등을 진행한다. 석재 홀과 목재 홀은 리셉션과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된다.





IV

정책 제안

□ 과천축제

○ 과천축제와 화훼산업의 융합

- 과천을 대표하는 산업인 화훼산업과 과천축제의 융합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일 것이다.
-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역축제에 화훼산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각종 공연의 소재 등으로 활용하여 특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화훼산업에 대한 자긍심과 소비자들의 화훼산업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지역문화와 화훼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과천축제 후원 문화 정착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까지는 1961년에 결성된 ‘잘츠부르크의 친구 협회’ 라는 후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이처럼 지역축제 후원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축제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하여 기업들과 단체, 개인 등이 과천축제를 후원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며 소비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물론 지역축제를 후원하는 기업,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는 후원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 한예종 유치

○ 문화예술 도시로의 비전 제시

-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안 빈은 모두 건축물·종교·음악과 같은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브랜드가 세계의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며,
- 이를 통해 해당 도시 내의 예술대학으로 세계 전역의 학생들이 입학을 원하고 있으며, 관광업이 국민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 과천시에는 수준 높은 시립교향악단, 시립여성합창단 등을 보유한 과천시립예술단과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과천축제가 있으며, 1천석 규모의 공연장, 국립현대미술관, 추사박물관, 과천향교 등 많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신도시 내 문화예술 공연장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 이처럼 과천시와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소규모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노력으로 문화예술 도시로의 이미지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 한예종 유치에 위해 과천시에서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 인프라 구축,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예종의 과천시대를 여는 것이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과천시의 경제와 문화 수준, 이미지, 주민의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끝.